

힌두교, 불교, 이슬람 선교의 장벽과 다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종족이 신봉하는 종교인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는 모두 전방 개척 선교의 우선 사역 대상이다. 인도 한 나라만 해도 세계 100대 미전도 종족 중 거의 50%를 포함하며,¹⁾ 전 인구의 98%인 14억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인도의 기독교 인구는 공식적으로 2.3%(2011)이지만 카스트 별로 보면 이들의 다수는 최하층에 속한다. 정통 힌두에 속하는 상층카스트, 그리고 중산층을 초점으로 보면 이들은 2% 중에서도 전도에서 제외되고 숨겨진 족속이다. 서양선교 500년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힌두와 무슬림, 상좌부 불교도 가운데는 왜 이렇게 복음의 진전이 없는가?

아래에서 먼저 최소전도지역인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에서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선교사들은 현지 종교, 문화와 같은 외적인 장벽에 주목했는데 이 글에서는 그와 함께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내적 장벽에도 무게를 두고 다루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글에서는 ‘돌파’라는 용어 자체가 돌파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영어의 ‘breakthrough’나 한국어의 ‘돌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엇인가를 뚫고 나아가는 것, 어떤 틈 사이로 파고 들어가 부수어 뜨리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성취나 진전을 나타내는 데 일반적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적군의 방어선을 뚫는 군사적인 이미지를 준다. 힌두와 불교도와 무슬림을 적으로 여겨 그 약점을 공격하여 무너트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서양 선교가 실패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세계 주요 종교권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그간의 선교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무슬림 선교를 위한 한 스터디 교재의 제목 “우리의 친구 무슬림”처럼, Friendship First,²⁾ 친구 되기가 먼저, 우정 쌓기가 먼저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필자는 본 강의에서 종교권 장벽 ‘돌파’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 다리 놓는 이야기, 또한 뚫을 필요도 없이 열린 문을 통해 친구로 들어가 복음의 결실을 맺는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I. 장벽

손승호 선교사의 『불교권 선교 가이드』를 보면 불교권 선교의 장애물 12가지가 나온다.³⁾ 이는 기독교와 거리가 먼 무신론 신관, 인간론, 죄론, 구원론. 그리고 불교와 문화와 생활이 하나가 되어 나눌 수 없는 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독교는 서양종교인 반면 태국인/미얀마인/라오스 인이 되는 것은 불교인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 상황에 맞지 않는 복음 전달과 같은 것이다. 크게 보아 교리적(신학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으로 요약된다. 그의 말대로 선교사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현지어를 구사해도 A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교권 청자가 Z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복음은 장벽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일주 선교사의 『이슬람권 선교 가이드』에서는 무슬림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놓인 장애물로 이슬람이 최종, 최고의 종교라는 인식, 그리고 변절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문화를 언급한다.⁴⁾ 또한 회심한 무슬림의 디사이플십을 방해하는 장벽으로서 문화적 장벽, 다른

1) 정보애, “21세기 미전도 종족,” 『한국선교 KMQ』 vol.22 No.3, 2023 봄호, 통권 85호, 17.

2) 스티브 벨/이슬람파트너십, 『우리의 친구 무슬림』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16). 이 책의 영어 원제는 Friendship First이다.

3) 손승호, 『불교권 선교 가이드』 (포항: 아릴락 북스, 2023), 265-271.

신자와 교제하는 기회의 부족, 그리고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이슬람 문화를 지적했다.⁵⁾

필자의 『힌두권 선교 가이드』에서도 기독교 복음에 반감과 거절을 가져오는 교리적 장벽을 언급했다. 힌두는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기에 기독교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반대하며, 윤회라는 여러 번의 기회를 믿기에 단 한 번 인생의 삶으로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대속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카스트제도와 같은 사회제도는 전통적으로 힌두 개종의 주요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힌두교와 힌두들이 가진 장벽의 높음보다 복음 전달자인 선교사와 교회가 가진 내적 장벽을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힌두들의 눈으로 볼 때 최악의 범죄”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의 소/고기 먹는 문화이다.⁶⁾ 힌두교는 이슬람이나 기독교와 달리 교리가 필수인 종교가 아니라 문화가 필수인 종교이다. 그러므로 힌두의 문화적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문화에 맞지 않는 선교사들/현지 기독교인들의 문화와 부정한 삶이 주요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의 책들에서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서양인들의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침탈과 식민지배를 경험한 데서 나온 역사적 장벽 역시 기독교를 서양종교로 보고 거부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서양의 도움을 받아 독립한 한국의 독특한 경험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비서구권 세계는 서양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기독교 선교는 식민지배의 협력자와 앞잡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스티브 벨은 앞의 무슬림 선교 교재에서 이슬람의 분노를 일으키는 과거의 십자군 뿐 아니라 그 십자군의 연장으로 여기고 있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는 미군 문제를 포함한 역사적 장벽에 대해 길게 소개하고 있다.⁷⁾ 영국은 처칠 수상 때 2차대전을 치르면서 인도의 식량을 수탈해 갔는데 그 결과 3백만명의 인도인이 기근으로 아사했다.⁸⁾ 이런 뼈 아픈 식민지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인도인은 한국인과 달리 서양 및 서양문화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인도 국민당(BJP)이 정권을 잡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힌두민족주의 이념(Hindutva)이 일반 대중들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조상이 인도인이라 해서 인도인이 아니라 힌두문화를 가져야 인도인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역시 외부 침략자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주류 인도인의 거부감을 잘 보여준다.

II. 다리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의 교리적, 문화적, 역사적 장벽들을 볼 때 그 장벽이 꽤 높아서 도저히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타 종교권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동안 지극히 제한적으로 열매맺는 것에 그쳤던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모든 성벽은 외부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안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있어 접근가능하고 내부자들과 외부자들의 상호소통과 교류가 가능하다. 외부 공격자와 적군에게는 다리를 거두어 드리고 차단하지만 이웃과 친구들에게는 상호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라도 다리가 개방된다. 이 다리는 기독교와 타종교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길로서 그 길을 통해 성 안에 들어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타종교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기독교 선교사가 놓아야 할 다리는 어떤 것일까? 첫

4) 공일주 『이슬람권 선교 가이드』 (포항: 아릴락 북스, 2023), 274.

5) 위의 책, 282.

6) 진기영, 『힌두권 선교 가이드』 (포항: 아릴락 북스, 2023), 144.

7) 『우리의 친구 무슬림』, 39-42.

8) Madhusree Mukerjee, *Churchill's Secret War* (New York: Basic Books, 2010)

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고귀한 인격, 질병을 치료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십자가 희생은 힌두들을 감동 감화시키는 강력한 매력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와 너무 달라 안 될 것 같지만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공격적인 행동, 타락한 문화와 제국주의적 역사이지 예수님과 복음 자체는 환영하며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다리를 놓는 데 외적인 장애만큼 큰 장애는 선교사들이 돈을 의존하는 것이다. 돈 의존 선교, 또는 물량주의 선교는 500년 전 포르투갈로부터 시작해서 세람포르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서양선교 방식이다. 지금은 인도에서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다 보여지는 글로벌 표준방식이다. 돈을 의존하면 권위와 영향력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 가시적인 선교의 결과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돈 선교와 선교사의 풍요는 찰신자와 의존적인 기독교인을 양산하게 되며, 조나단 봉크(Jonathan Bonk)가 말한대로 복음의 왜곡을 가져 온다.⁹⁾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종교 또는 신앙을 중시하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⁰⁾

마하트마 간디는 만일 힌두의 모든 경전이 불에 타 재로 변하는 일이 벌어져도 이샤 우빠니샤드의 한 구절만 힌두의 기억 속에 남아도 힌두교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을 만나는 것과 변하는 세상 재물에 대한 탐심을 끊어버림으로 누리는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다(Isha Upanishad 1). 물론 인도에서 삶의 네 가지 단계에 따른 목표 중에 돈을 버는 단계도 있기에 돈 버는데 진심인 힌두들도 많지만, 힌두신앙에서 돈보다 더 높은 목표는 다르마(도덕, 의무)와 목사(해방)이다. 힌두권에서 제자들의 어두움을 비춰서 빛으로 인도하는 구루로서 종교 교사는 물질에 자유로와야 하며 물질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인도의 대표적인 구루 라마크리슈나(Ramakrishna Paramahansa)가 보여주는 대로 가난하고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이 기독교 구루인 선교사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은과 금의 다리를 놓으면 일부 하층민과 가난한 자들에게는 나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인도의 주류시민; 상층카스트와 중산층은 계속 버려진 족속으로 놔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음의 다리를 통해 상하층 힌두, 불교도, 무슬림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주님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놓아야 할 다리는 현지문화의 다리이다. 시릴 꾸티야니칼(Cyril Kuttianikkal)이라는 인도의 선교학자는 인도에서 기독교 선교가 거부되는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인도의 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¹¹⁾ 선교사는 기독교가 거룩한 종교, 탁월한 신앙이라는 자부심이 있겠지만 인도 문화의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 부정하고 불경건한 문화이다. 인도인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방식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이 규정되어 있다. 채식은 정결한 것, 육식은 부정한 삶이다. 결혼한 여성이 천 하나로 된 사리옷을 입고 다리를 가리는 것은 경건한 삶이지만 사리를 입지 않고 다리를 노출하는 것은 불경건한 삶이다. 성소에 들어가면 부정한 가죽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야 하는 데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는 것은 신 앞에 경건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인도의 관습과 문화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인도의 문화

9) Jonathan J. Bonk, *Missions and Money Affluence: A Missionary Problem... Revisited* (New York: Maryknoll, 2006), 74.

10) 진기영, 『서양식 선교 방식의 종말』(서울: CLC, 2017).

11) Cyril Kuttianikkal CMI, *Christ Devotees* (Delhi: ISPCK, 2022), 2.

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교사의 방식대로 거룩하게 살아도 인도인의 눈에는 거룩해 보이지 않고 타락한 범죄자로 보일 수가 있다. 다수의 인도인에게 기독교가 거부되는 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고기 먹는 기독교인의 부정한 삶 때문이다. 종종 선교사가 단지 한 번 화를 내었을 뿐인데 개종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심을 다 잃는 경우가 생긴다. 왜냐하면 분노는 자기 절제를 상실하는 것으로서 힌두권 문화에서는 종교 선생(구루, 제자 양성가)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열매를 많이 맺은 전도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선다 싱(Sundar Singh)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도의 그릇에 담아서 줘라”고 했다.¹²⁾ 여기서 인도의 그릇은 선교학자 앤드류 월즈(Andrew F. Walls)가 말한 ‘토착화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인도의 문화로 복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현지문화를 사용해야 힌두와 불교도와 무슬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은 선교사들은 현지문화를 파괴하고 서양문화 또는 외국문화로 된 다리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다. 선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인도의 교회들과 기독교인은 먹고 입고 생활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드리는 거의 모든 방식이 서양화되었다. 그 결과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성안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다리가 끊어지고 말았다. 선교사와 현지인 신자들의 공격적 태도, 우월주의, 현지문화에 대한 무시와 파괴는 반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켜 선교의 장벽만 높이고 있다.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아프리카 가나 신학자 존 포비(John Pobee)의 말을 인용하여 선교사의 이러한 태도를 타블라라사(Tabula rasa, 빈 석판)주의라고 말했다.¹³⁾ 이는 비기독교문화는 그 안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으므로 기독교를 그 땅에 세우기 전에 먼저 전통적인 비기독교문화의 요소들은 전부 파괴되어야 한다는 선교사 교리를 말한다. 그런데 앞의 문화적 장벽에서 말했듯이 불교 신앙과 문화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은 불교도에게 불가분리의 것이다. 무슬림에게도 이슬람은 삶의 방식 곧 문화이다.¹⁴⁾ 힌두교는 신명과 교리가 각기 다른 여러 종교들로 구성되기에 교리보다는 전체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문화를 더 중시한다. 그래서 옥스퍼드대학 교수 출신 힌두 철학자이자 초대 인도 대통령이었던 라다크리슈난(S. Radhakrishnan)은 힌두교를 삶의 방식/문화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¹⁵⁾

타종교의 문화에는 분명히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선교사는 과도한 상황화에 빠져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혼합주의에 빠져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선교사는 언제나 경계의 태세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0년간 서양선교는 교리 지키기와 성화에 주로 무게를 두다보니 힌두, 불교도, 무슬림에게 서양문화라는 무거운 짐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힘들게 한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세계 기독교 시대에 한국인이 서양선교사가 밝은 전철에서 벗어나 힌두, 불교도, 무슬림 선교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지 개종자 수 증가만이 아니라 개종자의 삶의 방식(문화)에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서양문화/한인문화 우월주의 방식의 선교를 중단하고 타문화 속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공통점

12) Dayanand Bharati, *Living Water and Indian Bowl: An Analysis of Christian Failings In Communicating Christ to Hindus* (Delhi: ISPC K, 1997), 70.

13) Paul G. Hiebert, “Critical Contextu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1 No.3, Jul 1987, 104.

14) 『우리의 친구 무슬림』, 43.

15) 이는 라다크리슈난 뿐 아니라 서구의 힌두 전문가 클라우스 클로스터마이어(Klaus K. Klostermaier), 그리고 또 다른 인도인 전문가 고빈드 데쉬판데(Govind Deshpande), 비쉬와나탄(Vishwanathan)의 경우도 동일하다. 필자의 『힌두교에 대한 기독교 메시지, 선교방식』(포항: 아릴락북스, 2020), 43쪽을 참고하라.

을 찾아 그들에게 나아갈 삶의 방식, 곧 문화의 다리 놓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다리는 개종자들의 자연적인 다리인 출생 공동체의 다리이다. 이 다리는 선교사가 놓아야 할 다리라기보다는 놓여 있는 기존 다리를 유지, 활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선교사의 관점 또는 방침에 따라 다리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다리는 모든 개종자가 갖고 있는, 가족과 친지 또는 소속 카스트가 포함된 출생 공동체이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근대 선교 및 인도의 총체적 복음전도에 대한 기여가 큰 선교사이자. 그러나 아쉽게도 그를 비롯한 다수의 서양선교사들은 선교기지 또는 기독교 마을을 만들어 개종자들을 나머지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분리주의식(뺄어내오기식) 방식을 사용했다.¹⁶⁾ 이 방식은 핍박받는 개종자를 보호하고 생계수단을 제공하며, 개종자들의 신앙 유지와 교육의 편리성이 있어 선교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개종자들이 가족행사나 종교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힌두교, 불교, 무슬림 신앙과 문화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가족으로부터 박해받는 개종자들의 피난처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결정적 약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방식이 비성육신적, 비성경적 방식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그 방식은 개종자가 속한 가족, 친지, 사회공동체와의 모든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개종자가 자신의 공동체 내에 복음을 전할 길을 모두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인도인 복음전도자 다야난드 바라티(Dayanand Bharati)는 서양인의 인도선교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는 공동체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개종자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반대하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¹⁷⁾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가고, 누룩은 반죽에 들어가야 하며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며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의 소금과 반죽과 등불인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보관되며 등경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힌두권, 불교권, 힌두권 선교는 일부 비주류민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미국인 선교사 학자로서 인도에서 오랜 세월 사역했던 리처드 히브너(Richard Hivner)는 이것을 ‘자연적 다리 불태우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그동안 선교사들이 자연적 다리를 불태운 것이 힌두권 선교의 결정적 패착임을 인정하고 자연적 다리를 살리는 방식의 선교를 역설했다.¹⁸⁾ 개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 다리이다. 외부자인 선교사는 결코 만날 수 없고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운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복음의 빛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현지인 개종자들인 것이다.

그동안 개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방식의 폐해를 성찰하면서 내부자로서의 지속적인 역할과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개종자가 공동체에 머무르는 방식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¹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교문화가 지배적인 가운데 머물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내부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본질의 왜곡을 피할 수 없고 혼합주의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던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교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그룹의 시각

16) 『서양식 선교 방식의 종말』, 347-350.

17) Dayanand Bharati, 55.

18) 『서양식 선교 방식의 종말』, 389, 391.

19) 개종자가 공동체 내부에 머무르는 내부자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평을 내린 다음의 글에서도 그 동기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문상철, “개척선교 전략으로서 내부자 운동에 대한 비평” 『한국선교 KMQ』, Vol. 8 No. 4, 2009 여름호 통권 30호, 18.

으로 보면 공동체 내에 머무르는 방식은 결과 또는 숫자만을 강조하는 타락한 실용주의 노선이며, 개척선교를 위해 선교사들이 만든 전략적 상상력의 발휘에 다름 아니다.²⁰⁾ 또한 공동체 내에 머무르는 방식은 집단개종 운동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한 전략으로 종교개혁 전통과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위험한 시도이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공동체 내에 머무르는 것은 단지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오직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는 길 뿐이다.²¹⁾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에 머무르는 방식을 평가할 때 구원론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이후의 성화 문제, 그리고 교회론적 관점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윌리엄 캐리 시대든 오늘날이든 전통적으로 분리주의 방식을 지지하는 분들의 우려, 곧 혼합주의를 막고 본질적인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자하는 결의는 모든 선교사가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원리이다. 우리는 결코 결과와 수단과 실용주의에 치우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궁극적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긍정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길이 왜 반드시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는 길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에서 신앙으로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쉬울까, 남는 것이 쉬울까? 떠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핍박을 피하여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를 한 번 떠나는 것은, 그 공동체에 남아서 평생 핍박 속에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부에서부터 그 공동체를 변혁시켜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쉬운 일로 보인다. 앞은 한 번 죽는 것이고, 뒤에서는 여러 번 계속 죽는 것이다. 앞에서도 피치 못하게 떠나는 것이겠지만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출생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상층카스트 힌두 배경 기독교인인 수밤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역 사회의 구루이신 삼촌 중에 한 분은 성경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바타 중의 하나로 받아들인 분이시다. 어머니도 복음에는 관심이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까마[상층] 카스트를 떠나 천민의 교회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므로, 기독 신앙에 대해 알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카스트 힌두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1942년 3월 23일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천민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집 안에 가정교회를 세웠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내가 태어난 출생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루로 따를지라도 여전히 가족과 친족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헌신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설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이 지난 후 수백 명의 까마 카스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나는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족 공동체를 떠남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것이다.”²²⁾

캐리와 같은 분리주의자들이 성경의 가치(텍스트)를 지키고자 하는 데 대한 깊은 관심에 공감을 가지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힌두, 불교도,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세상(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힌두, 불교도, 무슬림 개종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선교를 위한 상상력 때문도, 다수의 개종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나 타락한

20) 위의 글, 20.

21) 위의 글, 24.

22) B. V. Subbamma, "Smoothing the Paths: A Caste Hindu Tells Her Story," *Mission Frontiers*, Jan. 2001, Special Issue.

실용주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공동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친구와 나라는 언제든지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떠나고 버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 사랑해야 할 신자의 사랑의 대상이자 목적이다. 무엇보다 타종교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 충성된 제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의 충실한 일원으로 남기를 바란다. 적어도 힌두권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힌두신앙은 특정 신을 믿는 것이 필수인 종교가 아니며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신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리켜 이쉬타 데바타(Ishta Devata, 선택한 신)라고 한다. 힌두는 이렇게 여러 신들 중에 자신만의 신을 선택하여 믿는다. 놀랍게도 근대와 현대 가장 영향력이 있는 힌두 구루인 라마끄리슈나와 싸이 바바(Sai Baba)가 예수님을 성육신한 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압박도 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그 조건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인도의 습관, 인도의 문화이다. 그 문화 중에 카스트보다 더 중요한 최고 가치는 가족이다. 인도에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최하층 천민’이라는 신분개념이다. 그리고 ‘소먹는 종교인’이라는 문화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가족을 떠나지 않고 공동체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반란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인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가 주 목적이라면 전도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가치이다.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 머무르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선교와 정확히 일치한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고 더럽다하여 세상 밖으로 그 제자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셨다. 도리어 어두운 세상에 들어와 그 고결한 삶과 십자가와 부활로 빛을 비추셨다. 사도 바울도 당시 노예제도가 지배적인 사회였지만 노예출신이 다수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교사회를 떠나 신세계를 건설하라고 하지 않았다. 주인에게 순복하며 착한 행동으로 빛을 증거하도록 도전했다.

분리주의 방식을 지지하는 자들은 공동체 내에 머물러야 할 필연성은 인정하면서도 머무르기의 어려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체에 머무는 것을 거절한다. 성화는 구원이 중요한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왜 서구인과 한국인은 자신들의 타락한 세상에서는 성화의 삶이 가능한 것을 믿으면서도 힌두, 불교도,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에게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성화의 삶이 절대 안될 것처럼 말하는지 의아하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 나라에만 있고 힌두, 불교도, 무슬림 나라에는 활동이 없으신건가, 아니면 악령의 세력 때문에 힘이 약해지셨다는 말인가? 혹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자들의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과 충성심은 미국과 한국 신자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헌신적인 한국 기독교인만 볼 것이 아니라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과 헌신적인 현지 기독교인을 살펴 봐야 한다.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은 공통적으로 공동체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다. 또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되듯이, 인도에서도 개종은 천민으로 신분 이동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자연히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도에서 힌두 사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박타(Yesu Bhakta, 공동체 내에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가 일찍부터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 윌리엄 캐리의 선교 동역자였던 다카 기지의 개척자인 오웬 레너드(Owen Leonard) 선교사는 세람포르 선교사 중에 개종자들로 하여금 가족을 떠나게 하고 카스트를 잃게 하는 방침은 그들을 현지인 공동체와 분리하도록 함으로써 복음전도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방식인 것을 인식한 유일한 선교사였다. 그는 개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저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

이 힌두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힌두가 아니라 기독교인 힌두가 되는 거지요. 우상숭배와 모든 죄를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힌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십시오.”²³⁾

오늘날에는 오웬과 같은 방침으로 힌두 공동체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수 많은 신자들이 존재한다. 그중에 따밀 기독교인으로서 남 뽀잡 지역에서 친구선교사기도대(FMPB)의 선교사가 되어 시크교인들을 위해 헌신했던 뽀잡 데이빗의 예를 들어 본다.²⁴⁾ 그는 20년간의 사역으로 기독교회가 전무했던 이곳에 십 만 명이 넘는 교인들과 수많은 교회를 세워 놓았다. 그의 사역 방법을 나는 뽀레미(premi)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는 개종자들을 기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뽀레미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은 시크교인이 지배하는 뽀잡 지역에서 ‘부정한 사람’, ‘타락한 사람’, ‘천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 전도는 멈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뽀레미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뽀레미로서 정체성을 갖는다. ‘뽀레미’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다. 뽀레미들은 시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참 구주, 참 구루로 받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또한 뽀레미 방식은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내부에 머무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가족의 가치,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공동체의 문화를 존중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기존 사회와 충돌되기보다는 도리어 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가며 전도하고 있다. 데이빗은 뽀레미들에게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하며 교인들의 헌신으로 교회건축도 한다. 그리고 전통종교의 제자삼는 방식을 따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III. 열린 문

아무리 좋은 다리를 놔도 성문이 언제나 굳게 닫혀져 있고 무엇을 말하든 아무 것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아무런 공통점도, 공감대도 없다면 선교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종교와 문화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복음의 준비가 있다. 이 준비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열린 문이다. 다리가 열린 문과 연결이 될 때 현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방식으로 복음의 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면 헬라인들이 만물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은 바 창조자 개념으로서의 로고스라는 용어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나 본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중요한 준비가 되었다(요1:1). 또한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한국의 샤머니즘이 가졌던 바 하늘에 계신 최고신, 주신으로서 하나님이란 용어를 한국의 신명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어느 문화권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캐나다 선교사 돈 리처드슨은 ‘구속적 유비’라고 했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특수 계시인 성경(그리스도)과 함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계시의 두 손 중 하나인 일반(자연)계시이다.

일반계시는 보통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이나 우주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정교한 질서 및 법칙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진다. 그러나 이와 함께 선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 종교 안에 있는 일반계시이다. 헬라 신앙 안에도 창조주 개념, 신의 아들 개념이 있지만

23) 『서양식 선교 방식의 종말』, 222-224.

24) 위의 책, 394, 395.

힌두교 안에는 놀랍게도 삼위일체 개념, 성육신, 그리고 창조주이신데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된 뿌라자빠띠(prajapati)란 신명이 나온다. 따밀의 쉬바 쉬단따(Shaiva Siddhanta)라는 경전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온 세계를 찾아 헤매는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왕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아들을 찾다가 뱀에게 물리고 독이 든 물을 잘 못 마셔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 신의 은총으로 부활하여 기적과 같이 잃은 아들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늘의 왕 이야기의 구속적 유비가 될 수 있다.²⁵⁾ 아들을 위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힌두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바유가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뿐더러 오직 유일한 창조주이자 구원자인 특정 신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라는 신앙의 구원론이 비슈누파, 쉬바파, 상띠파 신자들의 구원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좌부불교는 신을 믿지 않을 뿐더러 사랑을 집착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그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복음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교의 사성제인 고제, 집제, 멸제, 도제의 순서를 따라 미얀마의 불교 배경 개종자가 만든 “예수님의 사성제” 메시지는 구속적 유비를 사용하여 많은 불교도의 마음을 끌었고 수많은 불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²⁶⁾

스티브 벨은 아브라함의 희생제사를 구속적 유비로 제시한다. 아들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친 수양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관련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하즈 순례와 무슬림 예배의 중심으로 여기는 메카 성전 중앙의 검은돌 까바(kaaba)도 좋은 복음의 준비가 된다.²⁷⁾ 이 돌 색깔이 검은 것은 순례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손을 댈 때 그들의 죄가 돌에 옮겨지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를 기초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를 용서받는 기독교의 검은 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물론 이슬람 선교에는 성육신과 삼위일체론이 주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슬림 경전인 꾸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초자연적 성격과 거룩함이 분명히 나온다. 예수님의 탄생, 기적들, 가르침, 죽으심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불교권, 힌두권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꾸란의 열린 문을 통로로 해서 무슬림 구도자를 직접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열린 문과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문들을 활용하여 힌두와 불교도와 무슬림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개념으로 복음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인 선교가 과거 서양선교사들의 비성육신적 선교, 현지문화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선교에서 벗어나 현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속적 유비, 일반계시를 이용하고 자연적 공동체를 살린 다리를 놓음으로 수많은 힌두, 불교도,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25) 『힌두권 선교 가이드』, 109.

26) 『불교권 선교 가이드』, 384.

27) 『우리의 친구 무슬림』, 93.